

헤아려주신 노동조건보장문제

2017년 1월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학생가방생산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 깊이 마음쓰신것은 노동조건, 생활조건보장문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재봉작업장을 돌아보실 때였다.

재봉공들이 앉는 작업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설치된 레드형광등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이르시였다.

재봉작업장에 레드형광등을 설치하였는데 재봉공들이 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도를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 재봉공들이 하루에 8시간 재봉을 하고나면 눈이 아플수 있다.

이어 도안창작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창작가들이 자기가 창작한 도안들을 내놓고 심의도 하고 합평도 할수 있게 창작실의 가구들을 편리하게 배치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나서 도안창작가들이 다같이 모여 앉아 서로 의견도 나누고 협의회도 할수 있게 하려면 투영기를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사려깊이 이르시였다.